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감정표현 관용구 비교연구

아이게림
(동국대-서울)

Belyalova, Aigerim. (2017). A comparative study of emotional expression idiomatic phrases in Korean and Kazakh languag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5(3), 153-171. Kazakh and Korean languages are typologically agglutinative languages and they are in the family of Altaic languages. So, systematically they have many syntactic and morphologic similarities. Based on these f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languages through the comparison of Idiomatic Phrase which express emotions using human body parts. In this thesis after the reviewing previous research on Idiomatic Phrase they are categorized into five main emotional groups. They are joy, sadness, love, anger, and fear. An Idiomatic Phrase that uses a part of the human body describes not simply a body part, but also presents a variety of human emotions, actions, and lifestyles through it. I hope this study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many further studies of Idiomatic Phrase of the Korean and Kazakh languages.

주제어(Key Words): 감정표현(Emotional Expression), 신체어휘(Physical Vocabulary), 관용구(Idiomatic Phrase),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y), 카자흐어(Kazakh language), 언어 유형론(linguistic typology).

1. 머리말

최근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3월 27일 대한민국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¹⁾을 발표하고 카자흐어를 포함한

1) 국립국제교육원(2017)의 국내 대학 교육·연구 현황 및 여건에 따르면 현재 국내 8개 대학(33개 언어) 및 14개 대학원에서 특수외국어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특수외국어 언어교육을 진행 중이나, 특수외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으며, 주요 대학 재정·연구지원사업(CORE, 신홍지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한 다음 국가발전 차원에서 세계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특수 지역 지식산업 전문가 및 한류전도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양국 언어에 능통한 인적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 분야에서도 언어 간 비교·대조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언어를 배우는 데 어휘·문법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해당 국가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관용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관용구는 각 민족의 언어 중 고유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각 민족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한만춘, 2006:89). 본 연구는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관용구 중에서 감정표현 관용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 언어 간에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신체어휘에 나타나는 감정표현 관용구로 한정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한국어와 카자흐어는 유형론(typology)적으로는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에 해당하며, 계통론(系統論)적으로도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²⁾ 따라서 계통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관용구 목록을 형태론과 의미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두 언어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양국 언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들이 문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Batyrkhanova, 2013; Kadyrova, 2014; 송수영, 2016; 정다미, 2016 등) 감정표현이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관용표현을 어떻게 조망하는지 분석하여 관용구를 개념화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였다. 우선 한국어와 카자흐어 사전류 검토를 통해 ①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 사전」,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과 카자흐어의 경우는 Kenesbayev(1977) 「카자흐어 관용어 사전」을 1차 자료로 하여, ②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의 관용표현과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와 석·박사학위논문들을 2차 자료로 선정하였다.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인 ERIC,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키워드(관용표현 관련 용어: 관용어, 관용구, 관용표현, 속어, 속담, 익힘말, 익은말 등)를 결합하여 검색을 실시한 결과 4,488편의 연구가 추출되었다. 선정된 연구 중 관용구나 관용구 교육과 관련된 양국의 학술지를 검토하여 누락된 논문을 추가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기준에 적합한 논문 379편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어휘 관용구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두

역연구소, CK, 대학중점연구소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관련 지역학 분야(역사·지리·문화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어교육은 미흡한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2) 한국어와 카자흐어는 교착성이 뚜렷한 첨가어이며,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온다는 구문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음운상으로 보면 모음조화와 자음동화와 같은 특징이 보이며, 형태론의 측면에서도 'SOV' 어순이나 격표지와 관련해서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높임법과 높임말, 감격어 또는 음성 상징어(의성어나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는 어휘상의 특징으로도 유사하다.

언어의 주요 신체어휘에 해당하는 бас(머리), көз(눈), құлак(귀), мұрын(코), ауыз(입), кол(손), аяқ(발), кеуде(가슴), бет(얼굴), бауыр(간), иық(어깨), арқа(등)의 의미·형태 분석을 통해 한국어에서는 총 516항목의 감정표현 관용구 중 67%에 해당하는 344개의 신체관용구를 수집하였고, 카자흐어 경우에는 총 267개의 신체 관련 관용구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에 알맞은 분석 기준,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 수집된 관용구 목록의 타당도와 선정 기준의 적합성을 전문가 3인에게 검증받았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관용구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형태·의미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카자흐어 감정표현 관용구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감정표현 관용구에 나타나는 양쪽 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 개념화 양상, 인지방식, 문화 요소 등을 분석 기준으로 확정하였다.

많은 관용표현 중, 신체 관련 어휘를 사용하는 관용구는 단순히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 행위, 생활 모습 등을 다양하게 제시한다(Belyalova, 2015). 본 연구는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 관용구에 나타난 감정의 종류와 영역, 신체어휘(Physical Vocabulary)적 특징, 관용구의 형태와 내포된 의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양국 언어를 비교하는 데 언어학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 역사학 등 향후 통합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관용구의 정의 및 범주

‘관용(慣用)’의 사전적 의미는 ‘늘 습관적으로 쓰는 것,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쓰는 것’으로, 이는 국어학에서만 사용하는 제한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관용성’, ‘관용적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게다가 광범위한 영역의 ‘idiom’이 그대로 번역되어 쓰였기 때문에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에서 이러한 관용적인 의미를 갖는 표현에 대한 명칭은 ‘관용어’, ‘속어’, ‘이디엄’, ‘관용구’, ‘관용표현’, ‘익은말’, ‘익힘말’³⁾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누르갈리에바, 2008). 이는 속담이나 비유표현 등의 다른 여러 관용적인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과 구분하는 하위 개념의 명칭으로 설정되기도 하고, 그러한 표현들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의 명칭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용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포함시킨 관용표현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도리어 각 부분에 대한 고유한 방식의 연구 검토를 방해하고, 그 각각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3) 이외에도 관용어법, 관용문법, 속어표현, 협의관용어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성구라는 용어만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남한과 대조적이다.

국내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 중에서 가장 체계화된 ‘구’ 형식을 기준으로 정의한 논의들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관용적 표현을 ‘구(句)’ 형식을 기준으로 정의한 연구

저자 및 연도	연구 내용
최경봉 (1992)	단일한 의미를 창출하는 둘 이상 자립성분의 어휘 복합체이면서 구성 어휘 성분의 의미가 살아 있지 않은 언어단위
양영희 (1995)	구성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구 이상의 단위로 한 언어 공동체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 형성
문금현 (1999)	협의를 관용표현을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것들 중 구(句)의 자격을 가진 부류
한정한 (2010)	- 비유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이다가 굳어진 언어 표현으로, 독자적인 의미와는 다른 별개의 의미를 가진 어휘 또는 어휘 복합체 - 이들은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적 단어이면서 동시에 문장 내에서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기능하는 통사적 단어로 사용됨.

표 1에 제시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구(句)’라는 형태론적 특징은 관용구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구(句)’ 형식을 관용구의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또한 관용표현을 상·하위로 나눠 언급해보면 주경미(2006), 정성미(2008)에서 상위어를 ‘관용표현’이라 하고, 하위어를 ‘관용어’라 했는데 최경봉(1992), 장세경·장경희(1994), 성광수(1995), 김진식(1996) 등에서 ‘관용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한만춘(2006)에서 ‘관용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 이루어져 왔던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관용표현(phraseolog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대부터 관용표현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Smagulova(2014), Abagan 외(2013), Abagan 외(2017) 등의 논문은 모두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주 설정, 관용표현의 특성과 제약, 유형의 분류, 생성 원인과 과정 등을 고찰한 논문들이다. Smagulova(2014)는 관용적 단위(Phraseological units)를 상위 개념에 놓고 하위에 관용어, 속담, 관용구, 인사말, 은유까지 포함시켜 이것이 구체적인 발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관용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 Abagan(2017)에서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관용어(Idioms)’를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는 보다 상위 개념인 ‘관용표현’을 통해 화자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어절들의 모든 결합 관계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는 합성어, 관용어(속어), 속담, 금기담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관용어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제3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통사적인 구성이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여러 명칭의 대표로 둘 이상 구성 성분이 결합하여 제 3의 의

미를 생성하고 아울러 형태·통사적인 속성을 지니는 ‘관용구(Idiomatic Phra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2. 신체어휘 관용구로 표현된 감정의 유형과 분류

우리는 ‘희노애락’의⁴⁾ 감정을 느끼며 산다. 임지룡(1999)에서 ‘감정’은 인간관계의 일환으로서 ‘감정 유발 사건→감정 상태→신체·생리적 반응’의 체계적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언급이 있다. 20세기부터 인지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된 ‘감정’을 몸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으나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체를 이용하여 감정을 표현한다. 기쁜 감정을 느낄 때에는 입 꼬리를 올리거나 이를 드러내어 웃는다. 슬플 때는 낮빛이 어둡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들썩이기도 한다.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을 부릅뜨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를 사용하여 여러 감정을 표현한다.⁵⁾

그러나 감정의 유형과 범주는 문화권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유형의 분석 기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기쁨’, ‘슬픔’, ‘두려움’, ‘화’, ‘미움’, ‘부끄러움’ 등의 감정이 넓은 분포를 보이는 중심 감정이며, 영어에서는 ‘사랑’, ‘행복’이 중심 감정 범위에 포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⁶⁾ 또한 Johnson-Laird and Oatley(1989)에서는 ‘happiness, sadness, anger, fear, desire, disgust’와 같은 6가지를 기본 감정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카자흐어에서도 감정의 은유적 표현과 감정 동사의 의미론 연구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쁨’, ‘슬픔’, ‘두려움’, ‘화’, ‘부끄러움’ 등을 중심 또는 기본 감정(main emotions)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기본 감정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 비슷한 유형의 감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 사전」과 카자흐어의 경우는 Kenesbayev(1977) 「카자흐어 관용어 사전」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감정의 가짓수가 많은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두려움’의 5가지를 기본 감정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감정과 유사한 신체·생리적 양상을 보이는 기타 감정을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4) 喜怒哀樂[희노애락]: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곧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感情)을 이르는 말 <국어사전>.

5) 감정의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임지룡(1999)은 감정의 문제는 체험주의를 지향하는 인지 언어학의 정신에 들어맞는 주제이며, 여기서 체험주의란 우리의 추상적인 사고 및 개념화 과정이 신체화된 관점에서 유래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지 언어학적 접근 방법이 감정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언어표현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지룡, 김동환(1998:138) 참조

표 2. 감정의 유형 및 범주

기본 감정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감정
기쁨	근심·걱정이 없어짐, 기쁨, 자부심, 마음이 쏠림, 마음 편함, 마음에 들, 상쾌함, 기분이 좋음, 웃음, 원함 풀림, 으쓱해짐, 좋게 여김, 좋아함, 편안, 활기분한 마음, 황홀, 흡족함
슬픔	슬픔, 애달픔, 가엾음, 마음 상함, 기분이 좋지 않음, 외로움, 절망, 무거움, 무너짐.
분노	분노, 부아, 독기, 불만, 빼짐, 기막힘, 어이없음, 충격, 보기 싫음, 부담, 심술, 질투, 아니꼬움, 언짢음, 기분이 좋지 않음, 독한 마음, 마뜩하지 않음, 마음 상함.
사랑	관심, 보고 싶음, 사랑, 존경, 애정, 소중함.
두려움	겁, 두려움, 무서움, 걱정, 속이 탐, 초조, 긴장, 안타까움, 괴로움, 근심, 아절함, 당황, 두근거림, 불안, 안달, 애씀, 집착, 창피, 부끄러움, 무안, 핀잔, 수줍음, 쑥스러움, 떳떳하지 못함.

출처: 하위영역에 포함된 일부 감정 유형은 김향숙(2003), Belyalova(2015)에서 수집·추출됨.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어휘를 통해 표현되는 감정의 하위 영역을 구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남혜현(2007)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 유형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감정의 신체화에 근거한 관용구는 여러 언어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어휘 의미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간의 심리, 인지구조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 언어별로 신체어의 의미 확장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이들 언어가 사용되는 공동체의 역사, 관습, 전통, 경험 등의 이질성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문화적 커뮤니케이션과 빈번한 문물의 교류로 인해 그 특수성의 격차가 점차 좁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 언어의 감정표현 관용구를 비교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사전류에서 신체어휘 유형별로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를 수집해서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신체어휘 유형별 감정표현 관용구

언어	신체어휘													
	눈	코	입	귀	머리	얼굴	손	발	간	가슴	어깨	배	혀	이/치
한국어	94	23	15	15	40	31	21	13	22	57	6	4	1	1
카자흐어	82	7	16	12	42	18	16	6	7	47	1	4	0	1
합계	176	30	31	27	82	49	37	19	29	104	7	8	1	2

출처: 일부 관용구는 김향숙(2003), Belyalova(2015)에서 수집·추출됨.

표 3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 ‘눈’, ‘가슴’, ‘머리’, ‘얼굴’이라는 신체어휘로 구성된 감정표현 관용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신체어휘보다 이 4가지 신체어휘로 표현된 카자흐어 감정표현 관용구를 한국어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 관용구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몇 가지 카자흐어와 한국어 관용구를 통해 기술된 감정의 신체화 양상은 향후 더 풍부한 자료를 분석하여 앞으로 보완될 가능성을 열어둘 계기가 될 것이다. 우선 양국 언어에서도 같은 신체어휘로 구성되고 생리 현상이 일치하는 감정표현 관용구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 (1)과 같다.

(1)⁷⁾

- a. Көзге күйік болды [közge küyik boldı] - 눈에 가시 (미움)
[예] 눈에 가시처럼 보기 싫다.
- b. Бетінің қаны қашты [betiniñ qanı qaştı] - 얼굴이 하얘졌다 (공포)
[예] 공포로 얼굴이 하얘졌다.
- c. Жүрегі дүрс-дүрс қағу [jüregi dürs-dürs⁸⁾ qaғu] -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다 (기쁨)
[예] 기뻐서 가슴이 뛰다. 설레다.
- d. Жүрегі қысу [jüregi qısu] - 심장이 짓눌리다 (걱정)
[예] 걱정으로 심장이 짓눌리다.⁹⁾

(1a)~(1d)에서 보듯이 신체어휘 관용구들이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도 표현 방식과 관용적 의미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양국 관용구의 사용 범위는 같지만 표현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신체어휘 감정표현 관용구도 있다. 아래 (2a)~(2c)는 한국어와 카자흐어에서 관용구의 표현 양상이 다르지만 ‘자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며 활용 범위가 일치하는 예시들이다.

(2)

- a.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 b. Бала көздің нұры[bala közdin nuri]- 아이는 눈의 빛이다, 눈동자처럼 소중하다.
- c. бала тілі бал [bala tili bal] - 아이 혀가 꿀이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7) 본 장의 몇 가지 예시를 Belyalova A.(2015)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8) ‘durs-durs’는 카자흐어에서 쓰이는 의태어이다.

9) 카자흐어 예문 발음 표기는 읽기 쉽도록 라틴 문자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발음과 다를 수 있다.

(2a)~(2c)에서 제시된 관용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문화권에서 자식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표현들이다. 한국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를 카자흐어에서는 ‘눈의 빛’이라고 하거나, ‘혀가 꿀’이라는 달콤한 꿀에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신체적인 눈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티끌이 들어갈지라도 고통스럽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관용구를 사용하는 걸 보면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소중한고, 고통마저 잊게 해주는 존재라는 부모의 심정을 표현하는 관용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양국 언어에서의 신체어휘 관용구를 통해 감정의 언어적 대립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어에서도 ‘슬픔’과 ‘기쁨’의 감정은 ‘방향’과 ‘무게’에서 대립을 이루는데, ‘방향’의 대립으로서 ‘슬픔’은 ‘아래’로, ‘기쁨’은 ‘위’로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이 보인다. 즉 (3a)~(3e)에서 볼 수 있듯이 ‘슬픔’의 경우 ‘어깨’를 늘어뜨리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며 ‘아래’방향을 지향한다. 반면에 ‘기쁨’을 표현하는 신체어휘 관용구들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거나, ‘어깨’가 올라가는 ‘위’의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

(3)

- a. 어깨를 늘어뜨리다 - 실망, 낙담, 피로 등으로 갑자기 기운을 잃다.
- b. 고개를 들 수 없다 -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 c. Басын төмен салды [basın tömen saldı]- 모리를 밑으로 숙이다, 슬픔으로 고개를 떨어뜨리다.
- d. 가슴이 부풀어 오르다 - 마음이 흐뭇하여지다, 벅찬 마음이다.
- e. Жүрегі алып ғшты[jüregi alıp ũştı] -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두근거리다.

‘무게’의 대립으로서, 양국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에서는 ‘슬픔’은 ‘무거움’으로 ‘기쁨’은 ‘가벼움’으로 나타난다. 아래 (4a)~(4c)에서 보듯이 ‘슬픔’의 경우 ‘고개/머리’를 무겁게 짓고, ‘발길’이나 ‘어깨’가 천근만근이며,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한편, (4d)~(4e)에서 보듯이 ‘기쁨’의 경우 ‘발걸음/발길’이 가볍고 ‘가슴’이 활기분하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4)와 같다.

(4)

- a. 머리가 무겁다 - 기분이 좋지 않거나 골이 멍하다.
- b. 어깨가 천근만근이다 - 어깨의 무게가 천 근 만 근이 되다, 부담이 크다.
- c. Аяқ шырмады[ayaq şırmadı] - 어떤 사건이 생겨서 부담을 갖게 되다.
- d. 발길/발걸음이 가볍다 - 마음의 부담이나 거리낌이 없어져 상쾌하다.

e. Жүрегі орнына түсті[jüregi ornına tüsti] - 가슴이 흉가분하다.

또한 양국 언어에서 감정의 표현 방식이 신체어휘에 따라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신체기관은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간’이라는 신체어휘를 통해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신체어휘를 통해 표현된 감정표현이 복잡한 대응을 보이기에 감정과 신체어휘의 일정한 대응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다고 해석된다.

표 4. 신체어휘 ‘간’과 감정의 대응 관계

기본 감정	신체어휘 관용구
애(哀)	간장을 끊다, 간장이 끊어지다
오(惡)	간에 차지 않다, 간장이 썩다, 간장을 썩이다
구(懼)	간이 작다, 간이 오그라들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긴장(緊張)	간을 녹이다, 간이 타다 등
경(驚)	간이 덜렁[덜렁/칠렁]하다, 간이 떨어지다 등
구(懼), 경(驚)	간이 별름거리다, 간담이 서늘하다 등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광범위한 관용구의 개념 정립이 어려운 만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신체어휘 관용구를 통해 표현된 감정을 유형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한 가지 신체어휘로 구성된 감정표현 관용구는 여러 감정을 표현할 수 있거나 감정의 표현 양상이나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언어의 어휘·문법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용구를 비교·분석 또는 번역하는데 해당 나라와 민족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와 관련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2.3. 최근 선행연구 동향

기존에 진행된 양국 언어의 감정표현 관용구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은 크게 언어학과 비교언어학 분야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학적인 접근에서는 감정표현 관용구 관련 연구가 관용구 교육방안과 의미·형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초점을 둔데 반하여, 비교언어학적 연구는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감정표현 관용구를 중심으로 비교·대조 분석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있다(이진금, 2010; 루린지예, 2016).

그러나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카자흐어 관용구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무한 수준이다. 본고에서 감정표현의 범위 설정을 위해 최근의 주요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감정표현 관용구 관련 선행연구

저자 및 연도	연구 내용
김향숙(2003)	1970년대부터의 감정표현 관용구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용어의 개념적 정의, 신체어적 특징 등을 살펴봤다. 또한 관용어 범위에 속담을 포함시켜 500여 개의 감정표현 관용어 목록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정표현 관용어를 6가지 감정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임지룡(2005)	‘사랑’의 은유적 및 환유적 양상을 밝히고 신체 생리적 작용 방식을 검토하였다.
한만춘(2006)	감정표현 범위를 6가지 기본 감정(사랑, 미움,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로 한정하여 구조, 내포된 의미, 문장 성분과 감정 그룹 등의 기준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관용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류랩 어딩치맥(2008)	신체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몽골어 감정관련 관용표현의 의미, 특징,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한국어에서 몽골어로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감정 분류를 크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누고 각 장을 더 하위 감정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다.
응웬 티 꾸잉 안(2013)	개념적 은유와 환유를 통해 ‘화’, ‘기쁨’, ‘슬픔’, ‘두려움’, ‘미움’과 같은 5가지 기본 감정 그룹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감정적 신체 관용표현을 대조·분석하였다.
장혜이메이(2014)	한국 드라마 분석을 중심으로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관용어를 수집하고 한국어 구어능력 향상을 위해 관용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Belyalova A.(2015)	한국어와 카자흐어 신체어휘에 나타나는 감정표현 관용어를 5가지 감정(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사랑) 그룹으로 선정하여 형태·의미적 특징을 기준으로 ‘동형동의’, ‘동형이의’, ‘이형동의’라고 분류해서 대조·분석하였다.

표 5에서 제시된 기존의 감정표현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자마다 광범위한 관용구 목록을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른 감정유형과 범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연구들에서 감정 유형을 상위 영역과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거나 한 가지 감정 유형을 중심으로 그 감정만을 표현하는 관용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그 중에 관용구의 의미와 형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김향숙, 2003; Belyalova, 2015 등)와 관용구 교육을 위해 서 양국 언어 관용구 안에 녹아 든 문화적인 요소, 민족의 언어적 특징 등에 초점을 둔 연구

들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관용구 연구의 일환으로 신체어휘 관용어(구)를 중심으로 한국어 관용어(구)를 다른 언어들과 대조하는 비교언어학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카자흐어 신체어휘 관용어에 대한 연구로 Belyalova(2015) 석사학위논문 한 편일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기본 감정 유형 분류에 있어서 Belyalova(2015) 연구와 유사점을 보이는데, 반면에 수집된 관용구와 분석자료 및 논의 방법에서 차이점도 보인다. 즉, 카자흐어 관용구 해석에 있어서도 양국 언어의 문화 및 인지방식의 특징을 반영하고 Belyalova(2015)에서 언급되지 않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신체어의 연구뿐만 아니라 신체어휘 관용구관련 연구도 카자흐어에 비해 훨씬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양국 언어의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를 비교·분석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Belyalova(2015)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와 더불어 후속연구를 위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다음 장에서 신체어휘 관용구의 의미·구조 분석을 통해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3. 한국어와 카자흐어 신체어휘 감정표현 관용구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은 동의(同義) 관계에 있다고 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의 짝을 동의어(同義語)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언어학계에서는 완전한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심재기, 1986). 따라서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동의어라 하는 것보다 유의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카자흐어 간의 정확한 의미 차이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의미와 형태상으로 유사한 신체어휘 관용구를 ‘유형유의(類形類義)’라고 지칭하고 의미나 형태에서 다른 양상을 가진 표현들을 ‘이형유의(異形類義)’ 또는 ‘유형이의(類形異義)’라고 분류한다.

3.1. 유형유의(類形類義)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

언어유형학적 관점에서 카자흐어와 한국어가 몇 가지 동일한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는 특성을 제외하면 두 언어 간에 상대적으로 차이점이 더 많다(Belyalova, 2015).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 5가지 기본 감정 범위 내에 양쪽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의미론과 형태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감정표현 관용구 목록에 있어서도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우선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공통점이 더 잘 보이는 '유형유의(類形類義)'의 관용구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유형유의(類形類義)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

한국어	카자흐어	관용적 의미	감정 유형
눈물이 나다	Көз жасы шығу [eyetears-3S.-Nom flow]	흥분으로 조마조마하다/ 슬픔으로 감격하다	기쁨/ 슬픔
고개를 숙이다	Басын салбырату [head-3S.-Acc. lower]	숙인 머리를 통한 포기상태의 표현	슬픔
가슴이 설레다	Жүрегі алып ұшу [heart-3S.-Nom. flutter]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두근거리다	사랑
이를 갈다	Тісін қайрау [tooth-3S.-Acc. gnash]	몹시 화가 나다	분노
얼굴이 하얘지다	Беті ағару [face-3S.-Nom. whiten]	겁에 질려 놀래다	두려움
심장/가슴이 뛰다	Жүрегі лүпілдеу [heart-3S.Nom. fluttering]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다	사랑
눈(앞)에 선하다	Көз алдында тұру [eye front-LOC. vivid]	모양이 기억에 생생하다	사랑
가슴이 아프다	Жүрегі ауру [heart-3S.Nom. ache]	슬프거나 안타깝다	슬픔
가슴이 찢어지다	Жүрегі жарылу [heart-3S.Nom. break]	슬픔이나 분함 때문에 가슴이 찢지는 듯	슬픔
눈을 부릅뜨다	Көзін алайту [eye-3S.-Acc. glare]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다	분노
손뼉을 치다	Алақан ұру [hand-Acc. clap]	기뻐하다	기쁨
허리를 펴다	Белін жазу [waist-3S.-Acc. stretch]	편안하다	기쁨

표 6에서 제시된 양국 언어의 신체어휘 감정표현 관용구는 구조와 의미가 모두 동일하며 번역할 때 비꾸 쓸 수 있는 일상생활 언어에서의 흔한 표현들이다. 하지만 하나의 관용구는 2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해석이 주어진다. 즉, ‘눈물이 나다’ 관용구는 ‘흥분으로 조마조마하다’와 ‘슬픔으로 감격하다’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한 가지 감정 유형은 여러 가지 신체어휘로 표현되는 예시도 있다.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기쁨’ 감정은 ‘눈물, 손뼉, 허리’와 같은 신체어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허리’로 구성된 감정표현 관용구 ‘허리를 펴다’는 ‘기쁨’의 감정표현에만 쓰인다. ‘슬픔’은 ‘눈물’ 외에 ‘고개, 가슴’이라는 신체어휘로 구성된 관용구를 통해 표현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구들이 구성 요소로 주로 ‘가슴, 눈, 심장’을 가지고 있다. ‘분노’ 감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무기로 ‘눈, 이’라는 신체어휘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감정의 관용구들이 보통 ‘얼굴’이라는 신체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인간이 두려울 때 감정이 바로 얼굴에 나타나며 주로 안색(臉色)의 변화 증상으로 양국 언어에서 똑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인간은 여러 가지 외부 상황에 경험하는 심리현상을 ‘감정’이라 한다(Belyalova, 2015). 감정은 단지 마음의 변화를 느껴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신체어휘 관용구 관련 연구의 주된 대상이다. 이렇게 한국어와 카자흐어 간에 ‘유형유의(類形類義)’의 관용구가 존재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문화로 비롯되어 비슷한 심리적 인지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표 6에 제시된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 외에도 형태와 의미상으로 유사한 표현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유형유의(類形類義) 관용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이형유의(異形類義)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

두 언어의 관용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성 요소나 구조·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관용적 표현을 본 연구에서 ‘이형유의(異形類義)’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얼굴이 반쪽이 되다’와 카자흐어의 ‘얼굴이 주먹이 되다’라는 관용구는 어휘 구성상의 불일치를 보이지만 관용구가 갖는 공통의 비유적인 의미나 기능상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7. 이형유의(異形類義)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

한국어	카자흐어	관용적 의미	감정 유형
어깨가 올라가다	Кеудесі көтерілу [chest-3S.-주격. go up]	기분이 으쓱해지다	기쁨
가슴에 못을 박다	Жүрекке жара салу	마음에 아픔/상처를 주다	슬픔

	[heart-여격. hurt-대격. put]		
눈이 맞다	Көзің қысу [eye-대격. close]	눈짓하다	사랑
눈이 둥그레지다	Көзі шығу [eye-3S.-주격. come out]	놀랍거나 두려워서 눈을 커다랗게 뜨다	두려움

표 7에서 제시된 감정표현 관용구는 형태상으로 약간 달리 구성되어 있거나 관용구를 구성하는 신체어휘를 다르게 한다. 하지만 양국 언어에서 의미론적으로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한국어 ‘어깨가 올라가다’라는 관용구에 카자흐어 ‘가슴이 올라가다’는 관용구가 대응되어, 상이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만 ‘마음이 활기분하다’라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의 한국어 관용구 ‘가슴에 못을 박다’와 ‘가슴에 상처를 주다/내다’라는 카자흐어 관용구는 ‘N에+N을+V’라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못’과 ‘상처’라는 구성요소로 서로 다르다. 한편 앞서 언급된 듯이 사랑표현 신체어휘 관용구들이 대부분 ‘심장, 눈, 가슴’으로 표현된다. 이형유의 감정표현 관용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을 구성 요소로 하는 관용구의 한 가지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즉, ‘눈이 맞다’와 ‘눈짓하다’의 뜻을 가진 한국어와 카자흐어 사랑표현 신체어휘 관용구들이 서로 ‘N이+V’와 ‘N를+V’ 구조로 다르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표현하는 관용구 중에 ‘눈’ 신체어휘를 매개로 하는 감정표현들이 많다. 카자흐어 관용구 ‘Көзі шығу’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며, ‘눈이 둥그레지다’라는 한국어 관용구에 대응된다.

3.3. 유형이의(類形異義)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

양국 언어 간에 차이점이 형성되는 원인 중에 심리요인은 관용구의 생성과 구성에서 근본이 된다. 특히 서로 같은 형태로 구성된 관용구들이 한 언어에서는 사물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은유 또는 언어 간 인접성에 따른 환유에 의해 관용적 의미가 산출되고 그러한 표현의 의미가 같아지거나 달라진다(Belyalova, 2015). 한국어와 카자흐어 감정표현 관용구 중에 형태·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내포된 관용적 의미가 다른 관용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유형이의(類形異義) 감정표현 신체어휘 관용구

한국어 관용구	의미	카자흐어 관용구	의미
배가 아프다	심술이 나다	Іші ауыру [stomach-주격. ache]	후회하다
얼굴이 펴지다	걱정이 없어지다	Беті ашылу [fase-주격. straighten]	얼굴이 깎이다

마음을 주다	좋아하다	Жанын беру [mind-대격. give]	돌아가다, 죽다
안색이 굳어지다	긴장된 상태이다	Беті қатты [face-주격. harden]	화가 나다
속이 타다	마음이 풀이게 되다	Іші күйю [stomach-주격. burn]	심술이 나다

표 7에 해당 유형의 감정표현 관용구는 5쌍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언어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하나는 '객관적인 요인(объективті фактор)'과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요인(субъективті фактор)'이다(Belyalova, 2015).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요인은 다른 언어와 민족의 문화에는 없는 한 나라 언어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또는 문화적인 실체인 반면에 주관적인 요인은 양국 문화와 언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실체들이 양국 언어의 관용구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두려움'이라는 기본 감정 범위에 해당되는 감정표현 관용구를 비교하고 의미론과 형태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신체어휘 감정표현 관용구를 비교·분석하여 각 언어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고 두 언어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감정표현 관용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도하기 위해 우선 감정표현 관용구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사전류,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등 자료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어휘 관용구 목록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관용구를 기본 감정 유형,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두려움' 범위에서 '유형유의(類形類義)', '이형유의(異形類義)', '유형이의(類形異義)'라고 3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에 있어서 뚜렷이 밝혀진 점은 양국 언어에서 '의미, 구조, 구성요소, 감정 그룹'과 같은 기준들에 따라 일치된 관용구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다. '가슴이 설레다 (Жүрегі алыш ышу), 고개를 숙이다 (Басын салбырату), 눈물이 나다 (Көз жасы шығу), 이를 갈다 (Тісін қайрау)' 등이 바로 그 예이다. 또한 감정표현 관용구의 기준에서 내용적·지시적 의미를 제외하고는, 구조적 특징과 형태에서 동일성을 보이는 부분적으로 유사한 관계에 놓인 관용구도 도출되었다. 이러한 언어학적 특징들이 존재하는 것은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관용구 사이에 두 가지 기본적인 요인, 즉 '객관적인 요인(объективті фактор)'과 '주관적인 요인(субъективті фактор)'으로 인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한국어와 카자흐어 감정표현 관용구를 표현하는 감정 그룹과 관용구를 구성하는 신체어휘에 따라 유형화함에 있어 유사한 유형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관용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언어학적인 관점 외에 각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다르게 인식되어지는 감정 형상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수집된 관용구 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 관용구 수 대비 카자흐어 관용구 수는 거의 1/2정도이다. 그 이유는 『카자흐어 관용구 사전』(Kenesbayev, 1977) 발행 이후에 새로운 관용표현의 발생 및 러시아어, 영어 등의 일부 관용어(구), 관용표현들이 카자흐어로 변형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사전의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 언어의 관용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비교연구의 한계를 보다 넓히고 언어학적 접근과 동시에 인지언어학, 언어심리학, 신경심리학 또는 문화인류학 등의 융합 학문적 접근의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 관용구 수집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검토할 자료 범위를 사전류와 학위·학술지 논문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소설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분석의 대상을 확장한다면 양국 언어 간의 보다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카자흐어 간에 구문상의 유사점뿐만 아니라 음운이나 어휘 또는 격조사 등에서 많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양국 언어의 감정표현 관용구를 의미론·형태론적 측면과 동시에 통사적, 어휘적, 화용(話用)적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주의 깊게 비교·분석 해볼 수 있다.

관용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관용구를 개념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때 오히려 관용구의 개념과 광범위한 범주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접근은 향후 관용구 연구를 양적·질적으로 더욱 풍성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식. (1996). 관용어와 속담의 특성 고찰(I)-상이점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13집 17-41.
- 국립국어연구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국립국제교육원. (2017).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 김향숙. (2003).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남혜현. (2007). 신체화에 따른 의미확장 연구. *노어노문학*, 19(3), 3-28.
- 누르갈리에바. (2008). 한국어와 러시아어 관용구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루린지예. (2016). 한·중 감정 표현 오관(五官) 관용어 의미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문금현. (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 박영준·최경봉. (1996). *관용어 사전*. 파주시: 태학사.
- 성광수. (1995). 국어 관용표현의 구조와 의미적 특성. *성곡논총*, 26, 849-890.
- 송수영. (2016). 카자흐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단위명사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사이버대학교.
- 심재기. (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 27-54.
- 양영희. (1995). 관용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 26, 171-200.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응웬 티 꾸잉 안. (2013). 한·베 감정적 신체 관용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진금. (2010). 독일어 관용어 이해와 학습에 대한 연구: 독·한 신체어 관용어의 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임지룡. (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02), 89-117.
- 임지룡. (2005). '사랑'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87, 201-233.
- 장세경·장경희. (1994). 국어 관용어에 관한 연구: 정서 표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25(0), 295-318.
- 장혜이메이. (2014).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감정표현 관용어 교육방안 연구: 기쁨과 슬픔 감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정다미. (2016). 한국어 보조용언의 습득 양상 연구: 카자흐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 정성미. (2008). 신체어 감정 관용표현의 서술어 의미 연구: 긴장과 분노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27, 243-265.
- 주경미. (2006). 신소설에 나타난 신체어 관련 관용 표현 연구: '손, 눈, 입, 코, 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8, 25-51.
- 최경봉. (1992). 국어 관용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퓨랩 어딩치맥. (2008). 한·몽 감정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와 번역 연구: 신체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한만춘. (2006). 한국어와 러시아어 관용구의 비교연구: 감정표현 관용구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18(1), 87-120.
- 한정한. (2010). 관용구의 문법범주. *어문논법*, 61(61), 315-349.
- Abagan A. 외 1인. (2013). National Specific of Idioms in Kazakh and Korean

- Languages. *International Scholarly and Scientific Research & Innovation*, 7(2), 472-475.
- Abagan A. 외 3인 (2017). Cultural connotation of Korean and Kazakh idioms. *G-Global*, 25(1). 15-21.
- Batyrkhanova, G. (2013).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격표지 대조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 Belyalova, A. (2015). 한국어와 카자흐어의 관용어 대조 연구: 신체어휘 관용어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Johnson-Laird, P.N., & Oatley, K. (1989). The language of emotion: An analysis of a semantic field. *Cognition and Emotion*, 3(4), 201-223.
- Kadyrova, A. (2014). 한국어 보조사와 카자흐어 조사 대비 연구: '-도, -만, -라도/da(de, ta, te), qana, tek, -aq'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Kaidar A. (2003). *Kazakh-Russian Phraseological Dictionary*. Astana: Bilge.
- Kenesbayev, I. (1977). *Vocabulary of Kazakh Phraseologies*. Almaty: Arys.
- Smagulova G. (2014). Verbal communication culture of the modern youth: Based on the study of Kazakh phraseological units. *International Informational and Analytical Journal «Crede Experto: transport, society, education, language»*, 02(09), 50-61.

부록

카자흐어 알파벳

키릴 문자	라틴 문자	IP 기호	키릴 문자	라틴 문자	IP 기호
А а	Aa	/a/	П п	Pp	/p/
Ә ә	Ä ä	/æ/	Р р	Rr	/r/
Б б	Bb	/b/	С с	Ss	/s/
В в	Vv	/v/	Т т	Tt	/t/
Г г	Gg	/g/	У у	Uu	/w/
Ғ ғ	Ğğ	/ɣ/	Ұ ұ	Ūū	/ɣ/
Д д	Dd	/d/	Ү ү	Ü ü	/y/
Е е	Ee	/e/	Ф ф	Ff	/f/
Ё ё	Yo yo	/jo/	Х х	Kh kh	/kh/
Ж ж	Jj	/ʒ/	Һ һ	Hh	/h/
З з	Zz	/z/	Ц ц	Ts ts	/ts/
И и	İi	/ɯj/, /ɨj/	Ч ч	Çç	/tʃ/
Й й	Yy	/j/	Ш ш	Şş	/ʃ/
К к	Kk	/k/	Щ щ	Şş şş	/ɛ : /
Қ қ	Qq	/q/	Ъ ъ	(")	-[경음 기호]
Л л	Ll	/l/	Ы ы	Iı	/w/
М м	Mm	/m/	І і	li	/i/
Н н	Nn	/n/	Ь ь	(')	-[연음 기호]
Ң ң	ñ	/ɲ/	Э э	Ye ye	/je/
О о	Oo	/o/	Ю ю	Yu yu	/ju/
Ө ө	Ö ö	/ø/	Я я	Ya ya	/ja/

아이게림

0884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2-32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메일: aigerim2013@naver.com

Received on July 20,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15, 2017

Accepted on September 28, 2017